

'95 산업기술 주요 시책

통상산업부

— 목 차 —

1. 기술혁신 시책의 체계적 추진
2. 효율적 산업기술개발 지원 강화
3. 능동적 국제기술협력 전개
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의 본격 추진
5. 산업디자인·포장진흥시책의 확대

1. '95 기술드라이브 추진방향

주요 선진국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간접적인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은 기술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기술인프라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95기술시책도「연구개발 기반 정비」와「R&D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중점분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국제기술규범하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규제될 것에 대비하여 간접적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기술혁신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조성을 기술정책의 양대 축으로 하여 생산현장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인력·정보·연구시설 등 기술하부구조 확충에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기술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95년에는 '94년에 마련된「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의 정책수단을 구체화시켜 체계적·종합적인 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WTO 출범에 대응하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기술하부구조 확충5개년('96~2000)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화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 지역별 연구기관의 분포, 주력산업의 종류, 지방정부의 지원대책 등의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기술개발 체제 구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조기 완료하고 제2단계 기술발전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기술혁신 시책의 체계적 추진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본격 전개

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해「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5년 6월말까지 본격적인 기술중심의 산업정책 추진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산업기술심의회 설치 등 기술정책 추진체제 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 출연금 사용·관리근거 규정, 산업정보전망사업과 관련된 전자문서 표준화 및 산업정보 보안관련 세부사항 등 마련,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지원근거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정책의 중점을 기술개발 지원에서 기술하부구조 확충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하부

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현장기술 교육·훈련사업, 산업·기술정보의 유통 촉진 및 전산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별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및 기술연구시설 확충사업, 민간 자율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지원제도 개편 계획, 국제기술협력 확대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며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 '95. 2~'95. 3
- '9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예산(안) 작성·제출 : '95. 5
- 기술기반조성 5개년 계획(안) 작성 : '95. 6~8
- 5개년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및 종과심 상정 : '95. 10
- 5개년 계획(안) 최종 확정 : '95. 11

2) 지역별 산업기술지원 체제구축

「천안 Techno Valley」 구축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천안 지역 대학의 공동연구 체제구축, 생산기술대학원설치,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분소 설치를 추진하고, 우선 '95년중에는 호서대 천안캠퍼스에 신기술보육사업 등 산·학·연 공동기술지원 체제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천안 Techno Valley 구축작업단 회의를 통하여 기본사업계획을 작성한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다.

기반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기반기술(금형, 주물,

단조, 도금, 열처리, 용접, 염색)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기술 영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59%), 대구권(18.4%), 부산권(18.4%)에 업종별·지역별 지원센터(전체 15개소)를 지정·운영하며 기반기술에 대해 지원능력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시험·연구시설 구입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우선 '95년중에는 인천주물공단(주물분야), 남동공단(도금분야), 시화공단(염색분야)에 Pilot Plant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3) 기술확산 전략의 종합적 추진

기술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기술제품전」을 '95년 9월초에 개최, 우수기술개발제품의 전시 기회 제공 및 판로확보를 촉진시키고 산업기술대상 시상, 세미나, 우수기술개발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 업종별 단체의 행사참여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의 산업기술진흥 분위기 확산을 촉진 시킬 계

'95년도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개최 계획

	시기 및 장소	주요내용
제2회	• '95.3월말 • 부산직할시	• 지역특화산업고도화를 위한 기술혁신체제 구축 방안
제3회	• '95.4월말 • 광주직할시	• 지방정부의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

획이다.

또한,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정례개최, 제1회 회의('94. 10)를 계기로 조성된 기술진흥 분위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95년에는 지방회의를 정례화하고 중부, 경기, 강원권에서도 추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의 기술인상」을 제정하여 한 해 동안 기술발전에 가장 공헌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에 대한 국민적 의식함양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술정책교류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산업기술정책 수립-집행-평가의 각 단계에 민간전문가의 참여확대를 통해 객관적·체계적 정책형성 및 전문적 평가·관리를 추진하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법의 제정·시행('95.7)에 따라 발족될 산업기술심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각 분야별 정책교류회를 사전운영('95.2월 부터) 기술정책, 인력, 정보, 국제협력, 에너지환경, 연구개발교류회를 구성할 것이다.

「한국공학원」설립을 추진하여 공학·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활용하며 국내 공학·기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정책 자문 및 애로사항 발굴·건의, 국내외 산업기술 교류 촉진 및 산·학·연 협동 촉진, 산업기술포상 등 산업기술 진흥업무 추진 등을 주업무로 하게 될 것이다.

(단위 : 건, 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실적 및 계획			
		'94		'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공동애로기술 개발사업	○ 기반기술분야 : 도금, 열처리 등 ○ 공정기술 : 자동화 등 ○ 기타 : 소재, 부품기술 등	450	505	500	530
○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 주력산업의 업종별 핵심기술 - 신제철기술, 가스터빈엔진 LCD, 멀티미디어 등	15	303	18	460
○ 선풍기술개발 사업	○ 관계부처 공동의 G7프로젝트 - 차세대자동차,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 반도체, 환경기술 ○ 항공우주산업기술개발사업 - 중형항공기, 다목적 실용위성	6	399	6	617
○ 기타	○ 산업디자인개발사업 ○ 지방 산·학·연 콘소시움사업 ○ 국제공동연구개발 ○ 자동차·전자부품연구소 기반 구축 지원 등	-	207	-	311
계		471	1,414	524	1,918

4) 기술정보 확산의 효과적 추진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를 구축, 선진국들의 산업재산권 공세에 대응키 위해 국내 중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 활동을 사전에 진단·자문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운영요령 공고('95. 6월), 사업추진 관리기관 선정 및 전문심의기구 구성('95년 7월)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정보화 모델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산업의 체고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발생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95년중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광주, 대구, 전북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되, '97년까지 전국의 10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설 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여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이전정보센터」 기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3. 효율적 산업기술개발 지원 강화

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애로 기술 개발사업의 확대와 신제철 기술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여 실시하는 핵심복합기술 개

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항공, 우주, 환경 등 미래 첨단산업부문의 선진국 수준 진입에 필요한 선도 기술 개발사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디자인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지방중소기업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2000년대를 향한 산업기술 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91~'95)의 조기 완료에 따라 생산현장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2단계 기술개발 목표를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학·연 기술교류회」에서 도출하는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바

탕으로 「2000년대를 향한 산업기술발전 5개년계획」('95~'99)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기술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기술개발 과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에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분야별로 기술개발 과제를 접수하여 과제선정시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유사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도 중요도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개발기간간 기술개발 경쟁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사업의 엄정한 평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100% 평가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관리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 평가하는 상호 경쟁적

평가체계를 도입할 것이며 우선 지원 기술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전문가 초청평가 실시로 평가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사업을 연구개발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업무는 대폭 간소화 할 것인데 연구비 사용비목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보장할 것이며, 감사에 대비한 사후관리 체계 운영방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활동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 운영하게 될 것이다.

4. 능동적 국제기술협력 전개

1) 제1차 APEC 테크노마트 개최

APEC 국가간 기술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기술거래시장(Tech-mart)을 개최, 18개 회원국의 기업, 연구소 등에서 1천여명 참가 목표('95.5.2~27, 대전)로 통상산업 각료 연설, 기술이전세미나, 기술설명회, 기술전시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며 각 회원국의 기술 수요/공급대상 기술과제 조사('94.6~'95.1) 및 참가업체 모집 등 준비작업을 추진 할 것이다.

동 사업결과를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양자간 기술협력, 기술수출, 국내기업간 상설기술시장 운영기반 구축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본 전략 수립

「국제기술협력 수요 조사사업('94.7~'95.5월)을 토대로 기술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를위해 우선협력 대상국별 세부 추진전략 수립을 시행할 것이다.

3) 국제공동연구의 적극 추진

선진기술의 효율적 획득을 위한 주요기술 보유국과의 공동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95년 27억원, 필요시 여타 공기반재원으로 추가 지원), 기업주도의 시장지향적연구 중점 추진, 국제공동연구 운영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4)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 기술협력 사업의 전개

미국 및 일본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교류, 기술도입 및 투자알선 사업 등을 추진(한·미사업 8억원, 한·일사업 47억원)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분야, 일본과는 중소기업 현장기술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강점 기술보유국과의 기술협력사업 확산을 위해서는 호주와 제2차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회(KACCIT)를 개최하고 한·호 산업기술 협력기금을 설치하며 중국에 기술협력과 투자가 연계되도록 중국 주요 성단단위 또는 전문연구 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의 기술협력방안 수립·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도, 러시아, 중국의 전문가도 적극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계획수립·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경험을 활용, 발전단계별 협력전략을 모색, APEC 테크노마트의 후속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5) 기술교역 활성화 방안 추진

원천기술소재지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해외 첨단기술개발활동 거점 접근에 필요한 산업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및 협력 파트너의 탐색지원을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 설치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현장기술 상품화 지원을 위해 「대 개도국 기술수출 상품화 사업기술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94.10~12월)」을 토대로 중소·중견기업 보유 기술의 상품화를 구성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5.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의 본격 추진

1) 산업기술대학 설립

「산업기술대학법」의 제정 대신에, 개방대학의 한 형태로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개방대학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학교설립·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법령개정을 위하여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관계국장이 참여하는 기술대학 설립작업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 공동으로 「시범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교육부장관 허가 학교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 민간(전경련)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를 활용하여 '9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산업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수급방안 수립

급속한 기술진보와 산업구조가 기술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인력구조를 이에 맞게 개편해 나가기 위하여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수립, 정책이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및 연구실시 계획>

- 기술인력 수요 구조 및 전망 : '95.3
- 기술인력의 공급 구조와 수

급전망 : '95.5

- 기술인력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분석 : '95.7

-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95.10

3) 산업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확대

교육훈련정책 결정시 산업계 수요반영 제도화를 추진하고 공공 훈련 프로그램 조정시 산업계 인사로 "(가칭)공공훈련프로그램 훈련정책협의회"를 구성 산업계 의견수렴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공고 2+1제도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산업체의 직접 교육 훈련 기관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 지원하게 될 것이다.

4) 기술자격 제도 개선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 다양화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검정방법 및 검정기관 다원화를 검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류의 단순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 기술자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논문을 대학에서 심사하여 박사학위를 인정하는 논문박사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6. 산업디자인 진흥시책의 확대

'93~'97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을 중간 점검하여 실질적인 계획으로 보완 추진하고 WTO체제에 대비한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강화와 산업디자인포장전문인력 양성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공동이 참여하는 산업디자인 진흥정책 추진체계 활동도 정비할 계획이다.

-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 (위원장 : 차관)의 매반기 개최 추진

- 동 위원회 기능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대책반 구성 운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L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L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LAK-NET 가입안내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자료과

Tel : 553-2241/7 (교 : 45)